【 2016.2.06(토) 강원일보 】

올 공공공사 3조4천억원 풀린다

지난해 대비 6천억 감소 … 25일 지자체·기관 설명회 개최

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원주에서 도와 18개 시·군을 비롯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'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'가 열릴 예정이다.

이날 설명회에는 각 기관이 올해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다.

올해는 60개 기관에서 총 3,676건 3조4,249억원이 풀릴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6,14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나왔다.

해빙기 이후 도내 업체 지분이 최대 49%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도 발주를 시작한다. 우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평창 봉평면 면온IC~보광(135억원), 평창 대관령면 월정삼거리~차항(214억원), 평창 대관령면 횡계IC~진부(22억원) 등에 올해 사업비로 371억원이 쓰이고 향후 440억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. 이와 함께 국도 9개 노선 3,995억원, 국가지원 지방도 4개소 347억원, 지방도 15개소 500억원 등도 사업이 추진된다.

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"설 연휴가 끝난 이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올해 예정된 공사물량을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"이라며 "전체 공사물량은 줄어든 대신 도내 업체 참여 지분이 높은 도로공사가 발주되면서 업체 간 수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 하위윤기자